

*반주음원QR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박정관



1.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하 내 삼 형 상 이름 다 와-라
2. 우 리 의 모 양 중에 임 하 셴 하 내 삼 영 광



존 귀한 주의 재녀 됐 으니 사 랑 하 며 섬 기 리
존 귀한 왕이 여기 계 시 니

Copyright (C) 박정관 . Used by Permission



암송구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 17:11)

트랙터 가정예배 일지

일 시	참석자
기도제목 응답내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촌교회

트랙터 가정예배문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니라
(출애굽기 17:8~16)



1 함께 찬양하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 359장)

- 1)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 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 2)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 3)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반주음원QR



후렴)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2 함께 본문 읽기

출애굽기 17:8~16

8)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15)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16)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3 함께 생각하기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2002년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이심을 알리도록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골 들어갈 때 수비수가 기도하는 모습이 TV에 비칠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개막 사흘 전, 연습하다 부딪혀 넘어졌는데 근육이 12센티미터 정도 찢어져 6주 진단에, 회복까지 3개월이 걸린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스를 해야 했고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부상당한 이영표 대신 누가 투입되는가 하는 예측 기사를 곧바로 쏟아내었습니다.

원망과 분노 속에 괴로워하던 그는 용기를 잃던 중 깊은 회개를 경험하며 평안을 얻었고,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기적처럼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목발 없이 걷기 시작했고, 사흘 뒤에는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경기인 포르투갈 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1대 0 한국의 승리였고, 이날 결승골을 넣은 박지성 선수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한 사람이 바로 이영표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16강 진출이 결정되자 그라운드에서 믿는 선수들끼리 무릎을 꿇고 한참을 감사하며 기도드렸는데, 바로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비수인데, 골 넣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제 생각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곤경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4 함께 관찰하기

성경 본문을 보며 빈칸을 채웁니다

① 모세가 □을 □□ 이스라엘이 이기고 □을 □□□ 아말렉이 이기더니

② 모세가 □□을 쌓고 그 이름을 □□□ □□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여호와가 □□□과 더불어 □□□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5 함께 나눠보기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① 지난 6개월의 상황 중에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②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한 후에 ‘르비딤’에 도착하였을 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투경험도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대적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절체절명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전장을 향해 손을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는데,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높이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물리쳤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승리의 원칙은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첫째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손, 의지의 손, 영광의 손을 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6 함께 기도하기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손을 들면 이긴다는 사실을 평생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의지의 손을 들고, 영광의 손을 들고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